

트럼프 14차례 실득·김정은에 친서... 북미정상회담 이끌어내

한반도의 봄 이끄는 문 대통령 중재외교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일촉즉발의 긴장 구

도를 이어온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모색하는데 있어 중대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양자와 다자 정상외교를 거치면서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열인'해왔다.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뿐만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 격인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관건은 북미대화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지난해 6월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했다. 대북 강경론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며,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외교·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거듭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유지했지만 문 대통령은 11차례에 걸친 전화통화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북미대화에

美 트럼프와 세 차례 정상회담 미 부통령-김여정 대화 유도 북 김정은은 평양 초청 수락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올인

나설 것을 끊임없이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평창 동계 올림픽은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국제 스포츠제전의 개막을 축하하러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 문 대통령은 집요하게 중재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폐막식에 참석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 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평양에 보내 김 위원장에 직접 친서를 전달하고 비핵화에 나서달라고 설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先代)의 유언이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특사단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을 곧바로 워싱턴으로 보낸데 이어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면서 북미대화에 응할 것을 설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접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급기야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뜻을 밝혔다.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5월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남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워한 '사전정지'를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고 이를 남북한 합의사항으로 공식화, 북미 정상이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낼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추후 남북미 3자 정상 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본격화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 엄청난 성공 거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엄청난 성공을 거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행사 참석차 헬기를 타고 이동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아주 잘해 나가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처럼 기대섞인 예감으로 볼 수

있는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앞서 북미정상 회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했다"고 알려진 핵, 미사일 추가 실험 금지 약속과 비핵화 의지 표명을 상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본다"며 향후 북한과의 대화 성과를 재차 낙관하고 "우리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회담 전제 조건 없다...대북 기조 일관성 유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9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무려 9차례나 '구체적(concret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이 이뤄지려면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concrete steps and concrete actions)"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이는 그 전날인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북미 정상이 회담 의사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에서 처음 밝힌 회담의 '전제조건'이라고 주

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정상회담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날 발표를 사실상 뒤집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CNN은 "샌더스의 언급은 전날 명확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건들을 백악관이 내거는 것처럼 보이면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기로 한, 대통령의 과대하게 선전하는 합의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북미 정상이 서로 만나고 싶다고 했던 발표의 의미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 측의 설명이다. 오히려 언론

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동의해주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의 입지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고자 미국 정부의 대북 기조가 한결같은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리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방미 사절단 귀국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2박4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어서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 또 그것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두 분의 결단도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두 번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점포임대 - 구례

- 지리산온천지구 내, 지리산온천 정문 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55평), 편의점(55평), 지하 - 노래방(85평)
- 호텔건물 내 있음, 비품권리금없음
- 모든점포 분할임대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입주가능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판선 · 전원주택지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권주서 30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득림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주택 · 원룸 · 아파트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2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 투자 · 매도 · 교환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중흥동 새 아파트 99㎡와 88㎡ 3채 은행 3억5천 매도 2억4천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2억
-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화순 동면 정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 교환 2억5천
- 제주도 서귀포시 발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동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장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상가건물

- 순천만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5천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빌-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중음 12억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금 매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2㎡ 판선-별장용 1억3천
- 무안군 삼한면 맥포리 담 2002㎡ 차량집입 은행 3700 매도 3500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상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 토 지

- 임양동 효천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광신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신구 비야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신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신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아적합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텔거주 특)
- 남평읍 상곡리 전 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오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층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담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4억5천만원(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로, 바닷가토지, 남동향, 판선,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신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